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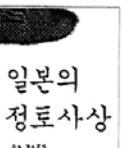
금강경연구



▲금강경 연구= <산스크리트 금강경> <몽고본 금강경> 현장의 한역본 <금강경> 등을 번역 소개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진오 스님이 10년만에 내놓은 완전 개정판. 1부에서는 금강경의 모든 판본에 대한 금강경의 변천사와 이유를, 2부에서는 금강경의 모든 주석서에 대한 서학적 연구를 다루고 있다. 진오 스님 지음 <출판시대 판, 값 1만2천원>



▲이것이 불교다=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교의 기초상식을 한권으로 터득할 수 있는 개괄서.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에서부터 대승불교의 흥기와 확립, 선불교의 탄생과 확립, 우리나라에서의 불교전개 등이 설명되어 있다. 불교를 바로 이해하는 좋은 길잡이로서 충분하다. 김성규 지음 <이시금 판, 값 8천원>



▲일본의 정토사상= 일본 불교사상. 그중에서도 신란(1173-1262)에 의해 이루어진 정토사상에 대한 연구서. 영어로 출간한 <신란의 이해-대화적 접근>을 수정 보완해 우리말로 옮긴 이 책은 중국불교 한국불교와 결정적으로 구분해 주는 일본불교의 특징은 무엇이며, 일본의 정토불교가 갖는 기독교와의 공통성은 어디에 있는 가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김희성 지음 <민음사 판, 값 1만원>

“고통이란 어떤 것이냐” “자아위협 불만족 상태”

장프랑수아·마티유父子대담집 ‘승려와 철학자’

서양인들이 불교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최근 국내에서 번역 출간된 <승려와 철학자>가 해답을 제시한다. 철학자 아버지 장프랑수아 르벨(75)이 출가한 아들 마티유 리카르(53)와 20년만에 만나 열흘간에 걸친 삶, 죽음 등 인생 본질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통해 불교의 진수를 전한다.

96년 네팔 카투만두에서 철학자인 아버지 장 프랑수아 르벨과 생물학자로서 유명한 장래를 포기하고 험난한 수행의 길로 들어선 스님인 아들 마티유 리카르의 대담으로 이뤄진 이 책을 ‘왜 출가했느냐’로 시작된다. <승려와 철학자>가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장·프랑수아: 최고 수준의 과학문명을 공부한 네가 갑자기 동양사상으로 인생을 선회한 동기는 무엇이었느냐.

마티유: 과학적 경력은 ‘발견’에 대한 정열의 소산이다. 과학에 제 삶을 나눌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더이상 제 삶을 동양 연구에 바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새장속에 갇힌 새처럼 느껴졌고 ‘나에게 자유를’이라는 한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건강, 권력, 성공, 돈, 감각적 쾌락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서도 외적인 평화의 원인이 되는 내적 평화를 발견하는 방법을 찾아 나선 것이다.

장·프랑수아: 고통이란 어떤 것이냐.

마티유: 고통은 심한 불만족의 상태에서, 육체적 고통을 뜻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진적 체험이다. 고통은 자아가 위협 받거나 그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 가장 강력한 육체적 고통도 정신자세에 따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체험될 수 있다. 권력, 부, 쾌락, 명예 따위는 일시적 만족을 가져다 줄 뿐 곧 불만으로 바뀐다.

장·프랑수아: 공(空)과 무(無)는 무엇을 뜻하는가.

마티유: 무에는 아무것도 없는 반면 공은 그렇지 않다. 공은 곧 보편적인 가능성, 우주, 존재들, 운동, 의식 등을 의미한다. 만약 궁극적인 본성이 공이 아니라면 발현은 전혀 이뤄질 수 없다. 공간이 없으면 가시적 세계가 전개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경전에서 ‘공이 있으므로 곧 만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장·프랑수아: 죽음은 두려운 것이냐.

마티유: 죽음은 상당한 정신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초심자에게는 두려운 원인이자, 하지만 전생을 바친 수도자는 경이롭게 죽음이 다가온다. 죽음은 친구같은 존재, 삶의 한 단



◇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와 티베트 스님이 만나 열흘간의 대화를 통해 동양불교와 서양철학, 행복과 고통,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은 책.

계, 단순한 옮겨감일 뿐이다.

이 책은 ‘불교가 종교인가 철학인가’에 대한 전통적 논의에서부터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애덕은 어떤 관계인가’, ‘발상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닌가’, ‘폭력은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등 이야기마다 흥미진진하다.

아버지는 실망감을 안겨 주고 떠난 마티유의 선택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서서히 터득하게 된다. 마티유가 심도 있는 불교수행을 통해 모든 형이상학이 공허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불가지론자 아버지의 생각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진실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이 이 대담집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결국 아버지는 지혜로서의 불교에 대해 감탄을 하고, 최근 서양에서 불교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소나마 알게되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승려 마티유는 “아무리 분명한 대화라 할지라도 사물에 대한 깊은 이해에 필수 불가결한 개인적 체험의 침묵을 대신할 수 없다. 체험은 곧 길을 뜻한다. 부처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가는 것은 각자의 의무’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창작시대 판,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황수영 전집 여섯째권

인도일기



불교문화재 가치 역설

한국미술사학계의 원로인 황수영박사(동국대 명예교수)의 50년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전집(전6권)이 완간됐다. 황수영전집 제6권으로 출간된 <인도일기>는 인도일기, 미국 기행, 민족문화와 불교미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인도일기는 저자가 석굴암 수리공사를 맡으면서 석굴사원의 발생지인 인도의 사원을 참고하기 위해 62년 12월부터 63년 5월까지 인도와 실론, 파키스탄, 네팔 등을 돌아본 여행기로 불교유적지와 풍물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2부 미국기행은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우리 불교문화재에 대한 감상을 적고 있다. 모든 사람이 문화재를 쉽게 접하고 애정을 갖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아끼지 않은 미국 박물관에 대한 부러움도 서려 있다. 3부는 민족문화와 불교미술은 국보·보물등을 포함한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단상을 담은 ‘국보와 보물의 관리’ ‘민족문화와 문화유산’ ‘동양 미술과 불교’ 등 한국 미술사 전반에 관련된 논문이 실려 있다. <해안 판, 값 3만5천원>

“북녘 밟고 있는 나는 꿈속의 사람이었구나” 고은 ‘산하여 나의 산하여’

보지도 않은 백두산을 7권의 서사시로 노래했던 고은시인이 마침내 자신의 눈으로 북한을 보고와서 순례기 <산하여 나의 산하여>를 썼다.

서두부터 “꿈이었다. 조국의 절반인 휴전선 이북의 땅 여기 저기를 실컷 돌아다니는 동안 나는 꿈속의 사람이었구나”고 운을 댄 저자는 처음 접한 조국의 참모습을 시종일관 시적인 어조로 노래한다. 3천5백km에 이르는 고은시인의 북한순례는 평양을 출발점으로 백두산 천지를 보고, 금강산을 입문한다. 신계사, 만물상, 장안사 표훈사에서 저자는 “금강산은 자연이 아니라 예술이다”고 잘라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천강을 거쳐 조선불교의 큰 스승인 서산대사의 묘향산에서 순례는 끝난다.

백두산과 금강산이 이 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 본문 사이사이 ‘백두산’ 등 9편의 시가 수록돼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하다. 북한의 풍경과 거리모습을 담은 70여장의 컬러사진도 볼거리다. 이 책은 ‘고은의 북한탐방’이란 제목으로 98년 8월 12일부터 99년 2월 25일까지 중앙일보에 연재됐다. <중앙 M&B 판, 값 8천원>



불교출판협 불서전

불교출판협의회(회장 원택스님)는 12일부터 19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제1회 불교도서전시회를 개최한다.

1천여권의 불서가 전시 판매될 이번 전시회에는 민족사, 운주사 등 40개사가 참여하며 저자와의 대화 및 사인회, 강연회 등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10% 할인판매되는 이번 전시회의 전 수익금과 각 출판사의 법보시를 받아 약 5천여권의 불서를 마련, 사찰 10여곳에 기증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불교출판협의회는 불교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분사가 펼쳐지고 있는 ‘사찰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매년 연례화 한다는 방침이다.

99 서울 국제도서전

국내 최대 책잔치인 99서울국제도서전이 1일부터 6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COEX) 태평양관에서 열렸다. 주제로 열자, 새로운 천년이란 주제로 열린 도서전에서 18개국 191출판사가 참가, 20여만권의 책이 선보였다.

용성 김광식 지음

대각교 운동 제창한 용성스님의 삶

일제치하란 척박한 시대상황속에서 곳곳이 불법을 수호하고, 널리 전하고자 했던 근대불교의 상징인 용성스님을 재조명하는 책이 나왔다.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연구위원이 펴낸 <용성>은 스님 삶의 궤적을 담고 있다.

일제치하 식민불교를 극복하고자 민족불교를 내세워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수호했던 스님, 대각교를 표방해 불교를 재해석 제창조합으로써 불교의 대중화와 불교교단의 정화운동을 전개했던 스님, 사찰경제의 활성화와 농촌포교의 대중화를 위해 선농불교를 제창한 스님의 발자취가 낱알이 파헤쳐지고 있다. 이 책은 구도자로서의 삶과 민족불교를 이끌어 나가는 인물로서의 용성스님이 한 순간도 불교와 시대적 고민을 놓지 않고 살아갔음을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다. <민족사 판, 값 7천원>

오직 모를뿐 은석준 옮김

불교적 해법답은 승산스님 서한집

28년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편지를 통해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승산스님 영문 서한집 <오직 모를 뿐(Only Don't Know)>이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각계각층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다양한 고민거리가 담긴 질문 편지와 그에 대한 불교적인 해결책들이 담긴 답신이 실려 있다. 승산스님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프로비던스선원에서는 스님에게 온 모든 편지는 발신자가 공개를 꺼리지 않는 한 답신과 함께 세계 각처 선원에 정기적으로 배부되고, 편지 내용을 읽는 것이 조식수련의 일과로 되어 있다. 이 편지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수록한 서한집은 외국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선수행 교과서로 읽히고 있다. <불명자리 판, 값 7천원>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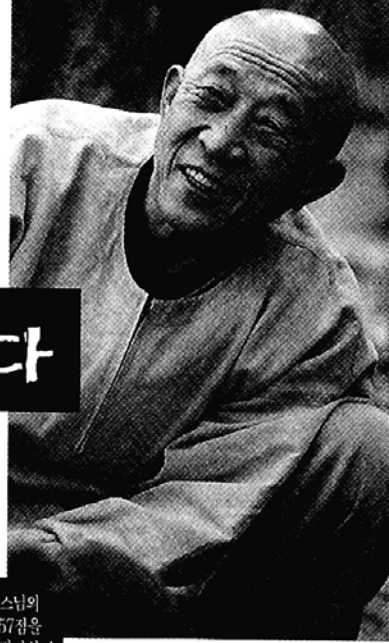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승려와 철학자	이 용 철	창작시대
3	타래	보 현	한림 서점
4	선문활요	이 철 교	민족사
5	파란눈스님의 한국 선 수행기	김 종 명	예문서원
6	한국의 불교성지	정성운의	불교시대사
7	인연이야기	삼 중	문학수첩
8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나	한 형 조	여시아문
9	불교입문	조계종원본부	조계종출판사
10	밀린다원경	정 안	우리출판사

구입문의: (02)737-0695

즐거움 책읽기, 생각하는 책읽기 - 늘푸른소나무

기막히게 슬프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수안스님의 그림이 있는 에세이

참 좋다. 정막 좋구나



개구쟁이 화가 수안스님의 인생이야기가 우리 곁에 왔습니다



쇼팽의 음악을 들으며, 아프리카 춤을 추는 스님... 람베이션을 보면서 세상만사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스님... 개구쟁이 화가 수안스님이 삶의 기쁨을 드립니다.

수안 스님의 작품 57점을 걸러내 만날 수 있습니다

손바닥 안에 물감 살 돈을 쥐어 준 할머니, 아버지가 사준 꽃신 한 켤레만으로도 평생을 만족하며 살아온 지체 부자유자 아가씨, 새해 아침에 내의와 양말을 사다 준 걸인들, 기도하는 내 어깨에 앉아 승복 속의 숨을 빼내 가던 새 한 마리, 비단속의 물고기, 돌보는 이 없어도 봄이 오면 절 마당에 돌아나는 썩 한 뿌리... 이 모든 생명체들이 나로 하여금 깊은 심상을 그리도록 한 것뿐이다. 이제 나는 그들로부터 받아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글과 그림을 본래 주인들에게 되돌려 준다. 저자의 발 중에서

<참 좋다, 정막 좋구나> 출판기념회 및 저자사인회 · 5월 19일(수) · 오후 6시 · 출판문화회관 강당 (독자들의 참석도 환영합니다)